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규찬(최효자), 김미경, 김영상,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박군자, 박부웅(최귀남), 윤승한(민옥희), 윤조준, 이영순, 이향교, 전순봉, 정경석(박지순), 조규영, 주경덕(이경자), 최상걸(이미향), 허봉선, 황군옥(이경주), 황성연(홍금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 최유경, 강영성(신화순), 김규찬, 김민형, 김순옥, 김희규, 박부웅, 박영순, 박지순, 박춘자, 서재희, 송다해, 윤승한(민옥희), 이상이, 이영순, 이옥남, 이인숙, 이효숙, 전순봉, 조옥자, 최상걸(이미향), 허봉선, 황성연, 베드로남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이진우, 이필례, 공인석(김명숙), 김병을(이영숙), 김옥자, 김정환, 김준구(이소은), 김창구(이희순A), 김창길, 박군자, 박권재(송영숙), 박부웅(최귀남), 박정숙, 박춘자, 백성원(안지영), 서재희, 석애자, 이강우, 이경자, 이순철(강봉석), 이월숙, 이종문, 이형옥, 임영자, 전영선, 정기성(심순옥), 채만기, 최효자, 허봉선, 현응건(이운옥), 무 명, 황수련.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창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희영, 서재희, 송영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 **월정헌금**

맹관순, 박춘자, 전병구(이인숙).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15주 : 열왕기하 24장 - 역대상 23장			
주, 일	열왕기하 24장 - 역대상 3장		
월요일	역대상 4 - 6장	목요일	역대상 13 - 15장
화요일	역대상 7 - 9장	금요일	역대상 16 - 18장
수요일	역대상 10 - 12장	토요일	역대상 19 - 21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준 방석대 이일로 천세혁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록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전도사	김성중, 이필례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나 : 김안나 시온·에덴 : 최원지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선교사	협력선교사	플룙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영환 고승진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A X 국 : 박동권 김명화 A X 국 : 이분옥
협력교회	협력단체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흥기 A M A : 조동진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도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2014. 4. 6. 주일 예배 설교

거룩한 만남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본문 : 고린도후서 7장 5 - 7절

설교 : 이진우 목사

본문 6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 두 번째 이유는 디도의 옴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 디도는 본래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부모가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라 소개하고, 혹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내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여 마침내 전도자가 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일찍 사도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했고, 디모데도 수습하지 못한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뿌리깊은 오해를 시원하게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2) 때문에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직한 해결사이며,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고난당하던 사도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사람을 감당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란 때때로 헛된 위로, 오히려 사람만 더 피곤하고 위로는커녕 약 오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옴의 친구들의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참 된 사람들로 깊은 위로를 더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까?

■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낚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충성스런 일꾼은 주인의 기쁨이 되고 충성스런 군인은 지휘관의 자랑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런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그 고향을 바라보며 그곳의 우물물을 그리워함을 듣고 다윗의 세 용사는 블레셋이 점령한 그 베들레헴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가져다 다윗에게 바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요 그 충성을 통해서 다윗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21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이야기 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보며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을 보며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상황이 역전되고 이제 요셉의 손에 형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0~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갈려 괴로움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로 인하여 위로함이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 더 나아가 사랑의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요,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서 채우고 서로 나누어 멍에를 지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요 이제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거친 들을 지나며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요 격려자요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코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혼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아픔이 되지 말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격려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세우며,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루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된 디도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 가정에서의 위로자, 성도 간에 위로자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15

2014. 4.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